

# 시간 멈춘 인천 개항장 거리...역사 담은 뉴트로 여행

## 놀아보세 먹어보세 쉬어보세

봄에 들어선다는 입춘과 동면하던 개구리가 깬다는 경칩이 지났다. 겨울 동안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펴고선 19세기 후반 개항기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인천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

인천의 시간 여행지는 중구청을 중심으로 멀지 않은 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걷기 여행의 최적지이다. 대한민국과 인천의 역사를 담고 있는 시설들과 옛 식당, 옛 건물을 리모델링해 변모한 문화 공간과 특색있는 카페까지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 곳이다. 여행객들은 걷다가 마음에 드는 곳에서 보고, 먹고, 쉬면 된다.

도시의 특상상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 그중에서도 전철을 이용해 인천 중구까지 접근하면 좋다. 경인선의 동인천역과 인천역, 수인선을 이용한다면 신포역과 인천역을 기점으로 취향에 맞춰 동선을 짤 수 있다. 1~2시간 코스부터 여유 있게 걷고 즐길 수 있는 하루 코스까지 다양하다.



인천 중구청 앞 개항장 거리 모습.

### 개항장 타임머신 코스



### 뉴트로 여행

인천 개항장 거리에는 새로움(New)과 복고(Retro)를 합친 신조어로, 복고(Retro)를 새롭게(New) 즐기는 경향인 뉴트로에 부합하는 여행지 또한 다수 있다. 수십 년에서 100여 년 전 건물들을 리모델링해 문화 공간이나 카페로 변모한 곳들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공간들이다. 앞서 소개한 역사 여행을 하다가 휴식 차원에서 들러도 되고, 이들 공간을 주력 여행 코스로 짜도 충분히 인천 개항장 거리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

◇인천 근현대 주류집단 싸리재  
애관극장에서 동인천역을 연결하는 고갯길인 싸리재다. 동인천역이나 신포역에서 접근하기가 좋다. 옛날 이 길엔 싸리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지금은 낙후한 거리가 되었지만, 100여 년 전부터 인천의 문화 교류는 신포동과 싸리재, 배다리를 거쳐 경인선 철도를 통해 서울로 이어졌다. 때문에, 싸리재에는 1970년대만 해도 병원, 한약방, 약국, 양화점, 포목점 등이 즐비했다. 서울 명동 못지않은 상권을 자랑했다. 최근 뉴트로 열풍에 힘입어 싸리재의 아날로그 정취를 살린 카페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카페 '싸리재'는 지은 지 90년 된 목조 카페이다. 이 곳에선 노부부가 커피를 내리며, 카페 안쪽에는 노부부의 100년 된 한옥 살림집이 있다. 음악에 조예가 깊은 부부는 축음기를 수집하고, 레코드판 음악을 들려준다. 대표 메뉴는 '커피콩붕'과 '싸리재'이다. 씩씩리한 에스프레소와 달콤한 연유, 촉촉한 생크림의 조화가 감미롭다.

백열전구를 만드는 일광전구는 폐업한 산부인과를 개조해 카페 '일광전구아트하우스'로 개업했다. 병원의 흔적을 최대한 살려 공사했으며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 개의 공간이 미로처럼 연결돼 있다. LED가 백열전구를 대체하면서 전구 회사들이 백열전구 생산을 중단했지만 일광전구는 백열전구를 문화 공간에 접목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브라운즈 개항로'는 싸리재 꼭대기에 있던 폐업한 이비인후과 병원이 카페로 바뀌었다. 황토색 타일을 붙여 지은 4층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접수창구였던 공간이 먼저 반긴다. 환자들이 대기했던 나무 의자와 서류 수납함, 캐비닛 등 병원 기물을 활용해 실내를 꾸렸다. 가파른 계단과 깨진 타일과 벽면을 고스란히 살렸다. 을씨년스러울 수 있는 공간에 초목 식물을 곳곳에 배치해 생기를 줬다.

문화공간 잇다스페이스는 1920년대 일제가 화약 원료인 소금을 보관하기 위해 지은 소금창고를 리모델링했다. 해방 후 한중방, 책방 등으로 사용되다가 마지막으로 한중방 동양서림의 창고로 쓰였다. 잇다스페이스 정희석 대표는 녹슨 양철지붕과 누렇게 빛바랜 태극기, 거친 바닥 등을 그대로 살려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시 및 목공예, 쿠킹클래스, 콘서트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인천관광공사가 최근 펴낸 '빈티지여행 인천'에 수록된 인천 중·동구의 문화 공간과 카페는 30여 곳에 이른다. 직접 걷다 보면 만날 수 있는 곳들이다.

〈사진=인천관광공사 제공〉

국내 첫 서양식 호텔 '대불호텔'  
외국인 고급사교클럽 '제물포구락부'  
항만 창고의 변신 '인천 아트플랫폼'  
100년전 인천 문화교류의 장 '싸리재'  
이국적 근대건축물 매력속으로



카페 일광전구아트하우스 외부.

### 역사 여행

인천역에서 출발하면 길 건너편의 붉은 '패루(櫺櫓)'와 마주하게 된다. 패루를 지나면 차이나타운 거리가 펼쳐진다. 중국음식점이 밀려 있는 이곳은 국내의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북성동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접어들면 '짜장면 박물관'을 만날 수 있다. 짜장면의 발상지인 '공화춘' 건물을 리모델링해 박물관으로 만들었다. 2층 규모의 이곳에선 짜장면에 대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박물관을 나와서 '인천화교중산학교'를 지나 내리막길을 따라가다 보면 조계계계석이 있다. 조계계계석을 정면으로 볼 때 왼쪽이 청나라 조계지, 오른쪽이 일본 조계지다. 조계지란 개항도시에 자리잡은 외국인 거주지를 뜻하며, 이들 외국인은 행정권, 경찰권을 포함해 치외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조계석을 뒤로 하고 가다보면 왼편에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호텔로 1888년 건립됐으며, 2년 전 복원된 대불호텔을 만날 수 있다. '양양국'으로 불린 커피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제공된 곳으로도 유명하다. 대불호텔에서 일본조계지로 들어서면 '은행거리'가 시작된다. 이 거리에는 옛 '일본제1은행' '일본18은행' '일본58은행'이 즐비해 있다. 일본18은행 건물은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으로 재개관해 이 일대 근대건축물의 모형을 전시하고 기능을 설명하고 있어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

은행거리에서 자유공원 쪽으로 방향을 틀면 개항기 일본영사관 자리에 1933년 건립된 중구청 건물이 나오며, 중구청을 오른쪽으로 끼고 오르막길을 따라가면 19세기 후반 개항장 일대에 거주하던 미국, 영국, 이탈리아, 중국, 일본 등 외국

인이 사용한 고급 사교 클럽인 '제물포 구락부'가 있다. 제물포 구락부 옆 계단을 오르면 원래 '각국공원'으로 불리던 자유공원에 다다른다.

웅보산 정상에 조성된 자유공원에는 개항 당시만 해도 '존스턴 별장'을 비롯한 외국인 사택과 공장 등이 들어서 있었지만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폭격으로 초토화되면서 대부분 소실됐다.

현재는 인천상륙작전의 시발이 된 월미도를 바라보는 맥아더 장군의 동상 등이 남아 있다. 공원에서 가깝게는 인천항, 멀게는 인천대교까지 내려다보인다.

이 밖에도 개항장 거리 일대에는 한국 야구가 처음 시작된 '웃터골 운동장' 터가 있는 제물포고등학교를 비롯해 인천기상대, 내리교회, 담동성당 등이 도처에 있다.



카페 브라운즈 개항로 내부.

광주일보 江原日報 경남신문 경인일보 대전일보 每日新聞 부산일보 釜山日報 제주新보 新 韓 半 島 韓 半 島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 회원사가 공동 취재·보도합니다.

2020년에도 "각종 연회 행사"는 **벤틀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메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

프로야구단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KBO LEAGUE KOREAN AIR 아시아나항공 t'way